

2017.03.04~10

주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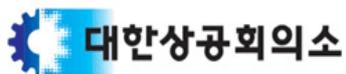
주요 베트남비즈니스 정보

Contents

I. 베트남내 기업동향

- ◆ 한국진출기업 동향
- ◆ 외국진출기업 동향(한국진출기업 제외)
- ◆ 베트남기업 동향

II. 베트남 산업/정책/기타 주요뉴스



베트남사무소



I. 베트남내 기업동향

◆ 한국진출기업 동향

- ▶ BNK금융지주 베트남 진출 기업에 금융·법률 서비스
- ▶ 선진베트남 하노이에 2 공장 건립...월 2 만 1000 톤 생산 규모
- ▶ 롯데건설, 베트남서 최대 규모 쇼핑몰 '롯데몰하노이'짓는다
- ▶ 서울도시철도공사, 베트남 호찌민 지하철 컨설팅한다
- ▶ SM상선 8일 첫 항해...부산북항서 화물신고 베트남으로

◆ 외국진출기업 동향(한국진출기업 제외)

- ▶ 2월 신설 외투 법인 수 164건, 호찌민 52건으로 최다
- ▶ '베트남은 외국 기업들에게 매력적' EuroCham 백서
- ▶ 일본의 편의점 체인들 베트남 소매 시장에 급속하게 참가
- ▶ 호찌민 해외투자 61.3% 증가
- ▶ 일본, 동나이(Dong Nai)성에 폐수처리시설 투자 의향

◆ 베트남기업 동향

- ▶ 중앙 은행 새 시행령 15일 시행, 금리 인상 금리 상한선도 철폐, 중소기업들 우려
- ▶ 다낭 중소 호텔 매출 급증, 공급 과다로 경영 악화
- ▶ 기업 및 개인, 3월 내로 세금 정산해야 한다

II. 베트남 산업/정책/기타 주요뉴스

- ▶ 베트남 소비자 해외 온라인 쇼핑 사이트를 사용하는 경향
- ▶ 베트남 EC 시장, 연평균+ 25%의 고성장 4G 보급에 더욱 기대
- ▶ 2016 년 대 러시아 수출액 + 20% 증가, 베트남과 유라시아 경제 연합의 FTA
- ▶ 빈딘 성, 성 내 첫 사파리 파크 건설 중
- ▶ 베트남 영화 시장 외국계 3 개사가 시장 점유율 8 할 차지
- ▶ 고무수액 국제가격 급등



대한상공회의소

- ▶ 달랏(Da Lat), 일본딸기 생산공장
- ▶ 하노이, 수익부동산 물량 쏟아진다
- ▶ 베트남 최초 하이테크 계란공장
- ▶ 투자건설 보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손실내용
- ▶ 에너지절약마크 부착이 면제되는 4 가지 대상
- ▶ 신문, 온라인 신문 발행 허가 관련 신규 규정



I. 베트남내 기업동향

◆ 한국진출기업 동향

BNK금융지주 베트남 진출 기업에 금융·법률 서비스

- BNK 금융지주[138930] 부산은행은 베트남 진출을 희망하는 부산·울산·경남지역 기업에 금융과 회계,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9일 밝힘
- 부산은행은 최근 베트남 진출 기업 지원을 위해 법무법인 버리와 업무협약을 함. 베트남 진출을 희망하는 지역 기업은 부산은행과 법무법인 버리로부터 초기 전략수립과 금융서비스, 회계 및 법률 자문 등 종합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
- BNK 금융지주 산하 경남은행도 같은 서비스를 제공함. 부산은행은 지난해 8월 베트남 남부 지역인 호찌민에 지점을 개설한 데 이어 지난달에는 북부 지역인 하노이에 대표 사무소를 열었음

* 출처: Yonhapnews, 03.09

선진베트남 하노이에 2 공장 건립...월 2 만 1000 톤 생산 규모

- 베트남사업본부장을 비롯한 임직원과 제 2 공장이 들어설 베트남 하남성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최근 기공식을 개최하고, 신규 공장 건립의 본격적인 시작을 선포함
- 하노이 BU 제 2 공장은 선진 베트남 사업본부의 네 번째 공장으로, 월 2 만 1000 톤의 사료 생산이 가능한 현대식 시설로 지어진다. 특히, 품질 차별화를 위해 일반사료라인과 자돈사료 전용라인을 분리해 설계한 것이 특징임
- 현재 베트남은 농장규모가 확대 되면서 사료 품질 차별화의 중요성이 높아진 상황으로, 선진 베트남사업본부는 하노이 제 2 공장을 베트남 축산업 변화를 주도하는 핵심 기반 시설로 자리매김 시킨다는 계획임
- 또한 제 2 공장을 바탕으로 급변하는 베트남 사료시장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임
- 이익모 베트남사업본부장은 “현재 베트남 시장은 양돈업의 고도화가 이뤄지면서 사료 품질에 대한 새로운 요구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새로운 생산설비를 통해 베트남



시장에서 그동안 경험하지 못한 사료를 공급, 글로벌 축산 경쟁력 강화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전함

* 출처: Vietnamlifeplaza, 03.10

롯데건설, 베트남서 최대 규모 쇼핑몰 ‘롯데몰하노이’짓는다

- 롯데건설이 해외 사업 포트폴리오를 동남아시아 중심으로 재편하면서 베트남 건설시장에서 입지를 확고히 하고 있음
- 3일 롯데건설에 따르면 롯데건설은 최근 베트남 하노이시 중심가인 서호 인근에 베트남 최대 규모 쇼핑몰인 ‘롯데몰 하노이’의 시공권을 따냈다. 이달 본계약 체결을 앞두고 있으며, 총 사업비 약 3300 억원 규모임
- 롯데몰 하노이는 사업 부지 7 만 3000 여㎡(2 만 2000 여평) 규모에 연면적 20 만여㎡(6 만 3000 여평)규모로 쇼핑몰, 백화점, 마트, 시네마 등으로 구성된다. 올해 8 월 착공에 들어가 2019 년 12 월 완공 예정임
- ‘롯데몰 하노이’는 지난 2014 년 완공한 ‘롯데센터 하노이’에 이은 두 번째 복합 쇼핑몰임. 롯데건설은 앞서 65 층 규모의 랜드마크 건축물인 롯데센터 하노이를 성공리에 준공해 베트남 정부로부터 상을 받음
- 외국계회사 처음으로 2014 년 안전우수현장으로 보건사회노동부 장관상(안전우수현장상)을 받았고, 착공 후 완공까지 53 개월동안 무재해를 달성해 하노이 인민위원회로부터 안전우수현장상을 받기도 함
- 이는 현지근로자의 낮은 안전의식 향상을 위해 신규근로자 자체 안전교육은 물론 소방서 위탁 화재예방 교육 및 방화훈련, 노동부 위탁 정기 안전교육 등을 시행한 영향이라고 회사측은 설명함
- 건축 이외에 토목분야에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베트남 북부 옌벤-라오까이 철도 개량공사를 완공했고 현재 중부와 남서부에서 고속도로 3 개 공구(다낭-꽝아이 A1 369 억, A4 716 억, 로테-락소이 229 억, 도급액 기준)를 시공 중에 있음
- 롯데건설 관계자는 “높은 품질과 안전한 시공을 통해 토목 공사 및 건축 수주를 이어왔다” 며 “앞으로 베트남을 동남아시아 진출의 전략적 거점으로 구축해 해외 수주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말함



- 롯데건설은 대한민국 최고층인 롯데월드타워(123 층·555m)를 준공한 기술력과 역량을 바탕으로 향후 베트남 초고층 시장에도 적극적으로 수주활동을 진행할 계획임
- * 출처: Vietnamlifeplaza, 03.10

서울도시철도공사, 베트남 호찌민 지하철 컨설팅한다

- 서울 지하철 5~8 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도시철도공사는 베트남 호찌민 지하철 운영유지 지원 컨설팅 사업을 수주해 계약을 맺었다고 9 일 밝힘
- 계약 금액은 2 억 7 천 500 만원으로, 2020 년 호찌민 지하철 1 호선 개통을 앞두고 서울 지하철의 노하우와 기술을 전하는 사업임
- 도철은 이에 따라 7 월까지 5 개월에 걸쳐 베트남 현지 상황과 서울 지하철의 사례를 분석하고, 실무자 연수를 한다. 이후 베트남 주요 정부 관계자와 관련 분야 전문가를 초청해 현지 보고회를 열었음
- 이번 사업은 2015 년 베트남 컨설팅, 지난해 콜롬비아·이집트·미얀마 도시철도 컨설팅 사업에 이어 도철이 진행하는 5 번째 해외 사업임
- * 출처: Yonhapnews, 03.09

SM상선 8일 첫 항해...부산북항서 화물신고 베트남으로

- 한진해운의 아시아·미주 노선을 인수한 SM 상선이 오는 8 일 첫 항해에 나섬. SM 상선은 한국~태국~베트남 노선(VTX)을 시작으로 컨테이너 운송 서비스에 들어감
- 이 노선에 투입되는 이싸뽀호가 8 일 낮 12 시께 부산 북항의 부산항터미널에 접안해 화물을 실은 뒤 9 일 오전 1 시에 베트남으로 출항할 예정이라고 부산항만공사가 4 일 밝힘
- 이 배는 20 피트짜리 컨테이너 1 천 300 개를 실을 수 있음. 이달 12 일에는 한국~베트남 노선(KHX)에 20 피트 컨테이너 1 천개를 싣는 SM 도쿄호를 띄움
- 미주 노선에는 4 월 20 일 컨테이너 6 천 500 개를 싣는 SM 롱비치호를 투입함. 이 배는 중국 Ningbo~상하이~부산신항~부산북항~미국 롱비치~부산북항~부산신항~닝보를 운항함



- SM 상선은 컨테이너선 12 척과 컨테이너 2 만개를 확보함. 부산항만공사는 "SM 상선의 아시아 노선 선박들은 부산북항의 부산항터미널에만 들르고, 미주 노선 선박들은 북항과 신항에 모두 기항하기로 했다"며 "신항의 터미널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라고 밝힘
- * 출처: Yonhapnews, 03.04

◆ 외국진출기업 동향(한국진출기업 제외)

2월 신설 외투 법인 수 164건, 호치민 52건으로 최다

- 베트남 각 성시의 계획 투자국 및 공단 관리 위원회 등의 데이터에 따르면 2017년 2월에 전국에서 신규 설립된 외국 기업 및 지점, 영업소, 주재원 사무소 수는 전월 대비 ▲ 25.6% 줄어든 164 건으로 그 중 법인이 149 개 지점이 10 건, 영업소가 1 건, 주재원 사무소가 4 건임
- 외국 및 로컬을 합친 이달 신규 설립 기업 수는 전월 대비 ▲ 39.3% 줄어든 5461 개, 등록 자본금의 합계는 동 ▲ 31% 감소의 62 조 3000 억 VND 임
- 신설 외투 기업 및 지점·영업소·주재원 사무소를 지역별로 보면 호치민시가 52 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 하노이시:44 건, ◇ 동남부 지방 빈중 성:12 건, ◇ 동남부 지방 동나이 성:7 건, ◇ 홍강 삼각주 지방 박닌 성:7 건, ◇ 동 흥옌 성:5 건, 동 하이즈영 성:5 건 등임
- * 출처: Vinahanin.com, 03.08

'베트남은 외국 기업들에게 매력적' EuroCham 백서

- 주한 베트남 유럽 상공 회의소(EuroCham)은 최근 유럽 연합(EU)·베트남 자유 무역 협정(EVFTA) 가능성을 테마로 한 "유로에 백서 2017"을 발행했다. 백서의 발행은 9 번째임
- 백서에 따르면 베트남 경제 성장에 기여하고 있다고 EU 기업들이 평가하고 있는 요소는 인구 약 9000 만명 중 10~24 세가 25%를 차지하는 것과 중산층의 증가 속도가 동남아 지역에서 가장 빠를 정도로 일인당 국내 총생산(GDP)증가율이 높은 것, 지리적으로 ASEAN 국가들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는 것 외에 문맹 퇴치율이나 진학률의 높고, 인건비가 싼 등이 있음



- 특히 외국 기업에게 베트남의 매력적인 특징으로 꼽는 것은 세계 무역 기구(WTO) 가입 시의 공약에 따르고 대부분의 서비스 분야로 점점 문호를 개방하고 있다는 점임
- 또 유럽 기업들이 특기로 하는 하이테크, 환경 기술, 농업 등 일부 분야에서 세율 인하와 같은 우대 정책을 적용하는 것도 평가하고 있음
- 다만 백서는 새로운 법률 시행 세칙의 공포가 늦은 것과 세무, 통관 허가 신청 등 각종 행정 절차에 시간이 걸리는 것 등 외국 기업이 직면한 곤경에 대해서도 지적함

* 출처: Vinahanin.com, 03.07

일본의 편의점 체인들 베트남 소매 시장에 급속하게 참가

- 일본의 서비스 문화에 대한 수요가 높은 베트남에서는 일본계의 편의점 체인들이 급속히 세력을 키우고 있음
- 세븐 일레븐 재팬은 조만간 호치민에서 개점 예정인 베트남 1호점의 구인 모집을 2017년 2월에 시작함
- 세븐 일레븐 브랜드가 아시아에 처음 진출한 것은 세븐 일레븐 체인의 원형이 되는 사우스랜드사가 대만에 진출한 1980년임
- 그 후 1991년에 세븐 일레븐 재팬이 미국의 사우스랜드사를 인수했다가 이후 경영 통합으로 세븐&아이 홀딩스가 됨
- 2014년에는 세븐&아이 홀딩스의 자회사인 세븐 일레븐 재팬이 중국 베이징에 1호점을 차려 성공을 거둠
- 중국 시장 진출은 대성공을 거두며 세븐 일레븐 재팬은 즉각 한국, 홍콩, 베트남 등 아시아 국가로 확대 계획을 개시했다고 함
- 이렇게 세븐 일레븐 재팬은 세계 중의 가혹한 시장에서 쌓은 경험과 함께 호치민에 1호점을 개점하기에 이른 것임
- 세븐 일레븐의 관리 팀은 미국 시대의 30년 이상 전부터의 회원도 상당수 있으며 편의점 부문에서는 상당히 높은 스킬을 가지고 있음
- 그 다른 체인들 또한 일본식의 제품이나 서비스, 직원 훈련을 베트남 전역에 퍼뜨리고 있음. 일본 제 3위 업체인 웨미리 마트는 2016년 7월 시점에서 베트남에 106점포 출점하고 있으며 2016년 말까지는 150개, 2018년에는 300개 점포 도달을 목표로 하고 있음



- 또 웨미리 마트는 대만, 중국, 태국 등 아시아 시장에서도 폭넓게 전개하고 있음. 일본의 대형 유통 업체 이온 그룹 편의점 체인인 미니 스톱은 일본 외에서는 주로 한국에서 전개하고 있지만, 베트남 전국의 이온 쇼핑 센터에서 점포를 개설할 계획이 있음
- 한편 일본 대형 제 2위의 편의점 체인인 로손은 해외 전개에 있어서는 뒤지며 2016년 6월 말 시점의 국외 매장은 아시아 전체 821 점포뿐임
- 로손은 상하이 현지 기업과의 합작 사업으로 1996년 중국 시장에 진출했지만 운영 능력 취약 등에서 매출과 점포 수 증가로 고전하고 있음
-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하와이 등 현재 일본 외에 790 점포밖에 펼치지 않았지만 로손은가맹점(franchise) 축진에 의해 2020년까지 중국에서 3000 점포를 전개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에서의 프랜차이즈 전개도 시야에 넣고 있음
- 아시아에서는 중류 계급층에 돌입하는 인구가 증가했고 편의점의 수요는 앞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일본식 편의점 운영의 특징은 이노베이션과 연속된 신상품의 투입, 그리고 독자적인 서비스 제공을 들
- 이러한 서비스는 같은 상품을 어떤 개량하거나 변경하지 않고 매년 제공하는 경향이 있고 기존의 베트남 소매점과는 전혀 다름
- 일본 무역 진흥 기구(일본 JETRO)는 국내 체인의 대륙 진출에 대해서 낙관적이며 일본 무역 진흥회의 임원은 일본의 편의점 업체가 베트남에서 대성공을 거둘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말함

* 출처: Vinahanin.com, 03.05

치민 해외투자 61.3% 증가

- 올해 호치민시가 받은 총 투자가 크게 증가했다. 호치민시 인민위원회의 2월 사회경제회의보고에 따르면, 2017년 1, 2월 두 달간, 호치민시는 4억 4천 3백 10만 달러의 해외 직접투자를 끌어들이었다고 함
- 지난해 같은 시기와 비교했을 때 61.3%나 증가했다. 스응옥안 (SUNgAnh) 호치민시 계획투자부부장은 2017년 2월의 정보를 인용, 호치민시가 96개의 예산 (작년대비 6.7%



대한상공회의소

- 증가), 총 1억 1천 9백 10만달러 규모의 새로운 투자를 유치하였고 24개의 추가 투자안이 총 5천 9백 7십만 달러 규모로 확인함
- 추가로 호치민시는 해외투자자의 투자신청, 주식구매, 회사지분구매 등 217건의 경우에 대해 승인했으며, 총 투자등록 금액은 2억 6천 4백만 달러로 작년같은 시기 대비 6배나 증가함
 - 업종에 따라 나누면, 방송통신 분야가 5천 50만달러 (42,4%)로 가장 많은 투자를 받았다. 다음으로 도소매, 차량정비, 차량, 오토바이가 3천 1백 9십 2만달러로 26,8%를 차지했다. 제조 및 가공분야는 1천 3십 3만 달러로 (8,7%) 3위를 차지함
 - 말레이시아 투자자가 4천 4백 2십 4만 달러로 가장 높은 비율 (37,2%)를 차지했고, 다음으로 일본이 2천 4백 3십 4만 달러로(20,4%) 2위, 네덜란드가 1천 6백만달러로 13,4% 3위를 차지함
 - 국내투자에 대해서는 스응옥안(Su Ngoc Anh) 부장은 호치민시에 4,404개의 새로운 기업이 설립되었고 그에 따른 총투자금은 약 57조 1천 9백 90억동이라고 전함
 - 신규등록 투자금과 보충등록 투자금의 합은 82조 6천 3백 6십억동이며, 작년 같은 시기 대비 40,7%가 증가한 수치다. 24조 4천 7십억동의 투자금과 함께 42,7%를 차지한 부동산이 가장 많았고 도소매, 차량정비, 차량, 오토바이분야는 8억 5천 4백억동의 금액과 함께 14,9%를 차지하였고 건설업은 14조 6천 6백억동으로 25,6%를 차지하며 작년 대비 5배 증가함
 - 투자금을 유치하기 위해, 호치민 인민위원회에서는 계속하여 기업발전 지원에 대한 방안들을 마련하고, 영업환경 및 투자환경개선 등을 위해 해외투자자의 기업과 호치민시 간의 만남을 마련할 예정임
 - 또한, 호치민시는 기업발전과 품질 및 창의적인 변화를 지원하고, 기업 생태계의 형성과 창의적인 기업활동의 촉진에 관해 집중적인 지원할 예정임
- * 출처: Vietnam-Korea Times, 03.07

일본, 동나이(Dong Nai)성에 폐수처리시설 투자 의향

- 일본의코벨코(Kobelco)그룹 대표는 동나이 성 지도부들과 하루에 100,000 m³의 수도를



대한상공회의소

공급할 수 있는 연짱(Nhon Trach) 제 2 발전소 투자 프로젝트 기회를 의논하기 위해 함께 회담을 가짐

- 쩌반빈(Tran Van Vinh) 동나이 성 인민위원회 부 주석은 현재 총 10,000ha 면적에서 31 개의 공업 단지가 활동을 하고 있으며 약 1,000 여개 이상의 해외 투자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다고 함
- 동나이 성은 300 만 명의 시민들이 거주하고 있으며, 2020 년에는 지역 생활용수 및 생산경영 수급 수요가 일 평균 100 만 m³ 에 다다를 것이라고 예상함
- 하지만, 현재의 수급 시스템으로는 일 평균 400,000m³ 의 수도만을 공급 할 수 있다. 2014 년에는 일본의 공적개발원조(ODA) 투자금을 사용한 연짱 1 수급 센터가 건설되었고, 하루 평균 100,000m³ 의 수도를 공급하고 있음
- 현재 동나이 성은 하루 평균 수급량을 200,000m³ 으로 올리기 위해 일본 국제협력기구(JICA)로부터 약 150 억 엔을 대출 받아 연짱 2 수급 프로젝트를 실행하고 있음
- 코벨코 그룹 대표는 건설, 철강, 중장비 분야 외에도 코벨코 그룹은 폐수처리 전문 기업인 Kobelco-Eco Solution 사를 보유하고 있다고 함
- Eco Solution 기업은 현재 에너지 절약과 환경 보호를 위해 폐수 처리 및 정수 기술을 적용하고 있으며, 주로 중력이나 사이펀 홀(Siphon hole)을 이용한 정수기술을 사용하고 있다. 이는 폐수 처리 및 정수 기술에 있어서 가장 발전된 첨단 기술임
- 코벨코 기업 대표는 연짱 2 수급 프로젝트에 해당 폐수처리 기술을 투자 희망한다고 밝힘. 동나이 성 인민위원회 부 주석은 수급 프로젝트 투자 촉진을 통해 지역과 주민들의 수요에 응할 것이라고 함
- 또한 쩌반빈 부 주석은 각 업계, 부서, 기업들에게 지속적으로 폐수처리 및 정화 기술 연구와 검토를 하여 연짱 2 수급 시설 건설 프로젝트 시행에 가장 적합한 기술을 찾기를 바란다고 전함

* 출처: Vietnam-Korea Times, 03.07



◆ 베트남기업 동향

중앙 은행 새 시행령 15일 시행, 금리 인상 금리 상한선도 철폐, 중소기업들 우려

- 국제 매매 관행에 맞추고 은행 대출의 투명성을 올리기 위한 베트남 국가 은행의 15일 시행 지시에 의해 금리가 오를 것으로 중소기업들이 우려하고 있다고 베트남 현지 언론이 전함
- 방안에 따르면 대출 금리는 농업·지방 개발 관련 하이테크 수출 중소기업, 주변 산업 등 특별 5개 분야를 제외한 완전 변동제로 함
- 또 금리는 금융 기관과 고객과의 합의로 결정된다며" 다른 관련 법에서 특기하지 않는 한 "20%로 규정한 2015년 민법의 금리 상한선을 철폐하겠다고 밝힘
- 전문가들은 대출이 수급과 고객의 신용도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고 통보를 평가하고 있음
- 그러나 특히 중소기업들은 금리 상승을 우려하고 있다. 한 물류 기업 사장은 자사가 대기업들과 대출에 있어 경쟁하기 어렵다고 함
- 중소기업들이 많은 가입하고 있는 호치민시 빈탄구 기업 단체의 회장도 금리 상한의 철폐는 시장 원칙에 따른 것이라고 납득하면서도 대기업과 다투어야 하는 중소기업들 대출이 불리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업계 신문에 지적하고 있음
- 베트남 후추 협회의 부회장은 중소기업들이 재무 보고서를 작성하는 대형 감사 법인의 감사를 받는 것이 대책의 하나라고 말하고 은행은 감사를 받은 기업의 신용도를 높이 평가하기 때문에 기업은 유리한 금리로 빌릴 수 있다며 감사를 권함
- 한편 중소기업 협회 대표자는 대출 금리가 높으면 증권 시장에서 자금 조달도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한 금융 전문가는 기업이 은행 대출 이외에도 중장기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채권 시장을 더욱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호소하고 있음

* 출처: Vinahanin.com, 03.05

다낭 중소 호텔 매출 급증, 공급 과다로 경영 악화

- 온라인 매체 베트남 인터넷 등에 따르면 베트남 중부의 다낭시에서 부실 중소 규모 호텔 주인들이 매각을 서두르는 경우가 늘고 있음



대한상공회의소

- 관광 시즌을 눈앞에 둔 1 월에도 다낭 연안의 중소 규모 호텔은 여전히 한산했다. 검색 사이트 구글에서 "다낭" "호텔" "매각"이라고 입력하면 0.42 초로 약 2 만 9600 건의 검색 결과가 표시됨
- 미계 해안에서 미니 호텔을 경영하는 탐 씨는 5년 전을 회고한다. 다낭이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20 대 도시"로 선정 되면서 "베트남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평가되어 관광객이 우르르 몰려옴
- 어느 호텔도 상시 만실로, 오프 시즌도 벅찼다. 누구나 일확 천금을 노리는 중소 규모의 호텔 건설을 서둘렀음
- 탐 씨도 자금을 모아 미니 호텔을 건설했다. 팜방 거리와 호안사 거리 등에는 1 성급에서 3 성급의 미니 호텔이 우후 죽순처럼 탄생. 그 수는 수백채에 달함
- 탐 씨는 "순식간에 공급 과잉이 되어, 상당수가 요금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 2~3 성급 신설 호텔이 1 실 1 박 40 만~50 만동 정도로 자신들의 같은 요금으로 이들호텔에 대항할 수 없게 됐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주인들이 팔고 손을 떼고 싶다고 생각하게 된 것 "이라고 말함
- 한 부동산업자에 따르면 현재 1~2 성급 호텔은 100 억~200 억동에 매물로 나오고 있다. 부동산업자들은 매력적인 위탁 수수료를 제시되고 있지만 그래도 나타나는 작자가 없다고 함
- 다낭에는 2016 년 외국인을 포함 550 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는 곳으로 호텔의 객실 점유율은 50~55%수준에 그침
- 숙박 시설의 수는 그 해 중반의 시점에서 535 채(2 만 166 개)에 이르며 이 중 1~2 성급이 425 채(9411 실)를 차지했다. 이외에도, 시간제 방식의 저가 민간 게스트 하우스가 수없이 존재하고 있음
- 다낭 관광국의 보고에 따르면 2017 년의 테트(설날) 시즌의 객실 점유율은 5 성급 등급이 약 75%에 이른 것에 반해 3 성급은 46%, 1~2 성급은 23~25%임
- 미니 호텔의 과잉은 구의 개발 마스터 플랜에도 악영향을 미쳤다고 다낭시 송차구 인민 위원회의 위원장은 지적한다.호텔 건설을 인정하는 에리어를 정한 종합적인 계획을 시급히 책정하여 불법 호텔 건설을 억제해야 한다고 인민 위는 주장하고 있음

* 출처: Vinahanin.com, 03.05



기업 및 개인, 3월 내로 세금 정산해야 한다

- 하노이에는 현재 140,000 개 이상의 납세 기업들과 157,500 가구의 납세자들이 있음. 지난해에 비해 10% 인상된 세금을 정산해야 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노이 관세청은 올해 3 월을 “납세자와 동행하는 달” 로 지정하여 세금 정산을 시행하고 납세자들이 재정적인 의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힘
- 마이선(Mai Sŏn) 하노이 관세청 부 청장은 매일 세금 관련 정책을 완화하고 납세자를 지원하는 일을 하고 있다고 했다. 올해 3 월에는 납세자들을 보다 다방면으로 확대하여 지원하기 위해 정책, 세금 신고 등의 지원 부서를 확장함
- 하노이 관세청 지도부는 관세청 내에서 뿐만 아니라, 도시 곳곳에 위치해 있는 30 개의 세무서 지국에서도 납세자가 많은 그룹, 기업들을 대상으로 규정된 기한 이내에 세금정산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세금 정산 필요 서류, 개인 소득세 정산 등을 지원할 것이라고 전함
- 관세청은 세금 정산을 하는 기업 및 개인에게 신청을 서둘러야 하며, 3 월 이내에 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말일 경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정산 신청을 피해야 한다고 전함
- 개인소득세 환급 신청을 하는 개인의 경우 따로 신청 기한이 없기 때문에 오는 3 월 31 일 이후에 납부할 것을 권장한다. 또한 규정에 따라 세금 정산을 고의적으로 90 일 이상 미루는 경우 해당 납세자는 최대 500 만 동의 벌금형에 처하게 됨

* 출처: Vinahanin.com, 03.07

II. 베트남 산업/정책/기타 주요뉴스

베트남 소비자 해외 온라인 쇼핑 사이트를 사용하는 경향

- 베트남인 소비자는 세계적 대형 사이트 아마존과 eBay 가 상품이 다양하며, 반품과 교환의 조건도 더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함
- 최근 발표된 보고서에 따르면 베트남인은 국제적인 쇼핑 사이트가 제품이나 서비스의 질이 높다고 보고 있으며 국내보다 해외 인터넷 쇼핑몰에서 더 많은 소비를 하고 있음



대한상공회의소

- 베트남 전자 상거래 협회(VECOM)이 발표한 이 보고서에 따르면 아마존과 eBay 같은 세계적인 쇼핑 사이트가 베트남인 소비자들에게 있어서 쇼핑의 편리성을 높이고 있다고 함
- "한편, 베트남의 온라인 비즈니스의 대부분, 특히 중소기업은 소비자에 대응하기 위한 시장 조사에 많은 투자를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보고서는 말함
- 베트남 국내 온라인 쇼핑은 상품의 다양성, 품질, 반품 정책, 수수료 등의 면에서 열등하다고 보고서는 강조함
- VnExpress 의 독자 Quoc Hung 씨는 "eBay 도 아마존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상품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반품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함
- 또 베트남의 쇼핑 사이트의 대부분은 송료 무료나 반품 무료 서비스를 하지 않는다고 지적하는 독자도 있음
- 중국의 대형 소매 사이트 알리바바도 베트남인 소비자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 알리바바의 베트남 국내 대리점인 인터넷 기업 OSB 는 이 회사의 베트남에서 고객 수는 최근 3년간 급속히 확대되어 50 만명에 도달했다고 함
- 베트남 전자 상거래 정보 기술국에 따르면 베트남인의 온라인 쇼핑 이용은 급속히 확대되어 2020 년까지 인구의 30%의 사람들이 인터넷상에서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입할 것이라고 예측함
- 상공부에 속한 전자 상거래 정보 기술국은 온라인 소매업 매출은 2020 년에는 국내 소매 시장의 5%를 차지하게 된다고 예측하고 있다. 이 비율은 2015 년에는 2.8%임
- 베트남의 전자 상거래 시장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확대를 보이고 있고 정부의 통계에 따르면 2015 년에는 전년 대비 37%성장, 40 억 달러 가까운 매출을 기록하고 있음. 업계 전문가의 추계에 따르면 베트남 시장의 성장 속도는 일본의 2.5 배라고 함

* 출처: Vinahanin.com, 03.05

베트남 EC시장, 연평균+ 25%의 고성장 4G 보급에 더욱 기대

- 베트남에서의 제 4 세대 이동 통신 시스템(4G)서비스의 본격 전개에 따른 국내 전자 상거래(e 커머스=EC)시장이 크게 성장할 것이라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음



- 베트남 상공부에 따르면 2016 년의 EC 시장의 소매 매출액은 약 50 억 USD 으로 전국의 소매 매출액 약 3%를 차지했다. EC 시장은 최근 몇년간 연평균+ 25%의 고성장을 계속하고 있어 2017 년에는 이 시장의 소매 매출액이 60 억 USD 에 이를 전망이다
- 또, 정보 통신부에 따르면 전국의 스마트 폰 이용자 수는 현재까지 약 3500 만명에 이르며 도시의 스마트 폰 이용자의 절반이 스마트 폰 경유하여 온라인 쇼핑을 한 경험이 있음
- 베트남 현지 소매업자의 피코 가전 센터(Pico)의 책임자에 의하면 동사의 웹 사이트에서는 스마트 폰에 따른 상품 검색 건수가 컴퓨터의 2 배에 이르고 있다는 것임
- 다만, 제 3 세대 이동 통신 시스템(3G) 통신 속도가 늦기 때문에 이용자에게 사영하기 편리하다고 할 수 없는 상황임
- 4G 의 통신 속도는 종래의 3G 의 10 배에 달하기 때문에 4G 서비스가 본격 전개되면 이용자 편리성이 향상되고, 베트남의 EC 시장은 더욱 크게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 또한 현재까지 ◇ 국방부 산하의 휴대 통신 대기업 베트남 군대 통신 그룹(Viettel), ◇ 베트남 우편 통신 그룹(Vietnam Posts and Telecommunications Group=VNPT)산하의 Vinaphone, ◇ Mobifone, ◇ GTel Mobile 등의 4 개사에 4G 서비스 사업 면허가 교부되고 있으며 모두 2017 년 중에 이 서비스를 본격 전개할 계획임

* 출처: Vinahanin.com, 03.10

2016년 대 러시아 수출액 + 20% 증가, 베트남과 유라시아 경제 연합의 FTA

- 주 러시아-베트남 대사관 상무 참사관은 최근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린 베트남 기업에 관한 세미나에서 2015 년 10 월 발효된 베트남과 유라시아 경제 연합(EAEU) 자유 무역 협정(VN-EAEU FTA)으로 2016 년의 베트남의 러시아 수출액이 전년 대비 + 20%증가했다고 밝힘
- 주 러시아-베트남 기업 협회에 따르면 러시아 경제는 안정 기미를 보이며, 이것이 베트남 수출 기업에게 호재이다. 이 협회는 현재 베트남과 EAEU 간 무역 활동 지원을 위한 대규모 프로그램을 전개하고 있음
- 베트남과 유라시아 경제 연합은 2013 년 3 월에 자유 무역 협정 협상을 개시하고 2 년 협상 기간을 거쳐서 2015 년 5 월 29 일에 정식 서명함
- 이 협정은 각국 국회 비준을 거쳐서 10 월 5 일 정식 발효됐다.이 협정으로 2018 년 말까지 총 5103 개의 관세를 철폐함



* 출처: Vinahanin.com, 03.09

빈딘 성, 성 내 첫 사파리 파크 건설 중

- FLC 파로스 건설(FLC Faros Construction) 산하의 파로스 동물원 투자 개발 주식 회사(Faros Investment and Development of ZooLogical Garden=Faros Zoo)는 남 중부 해안 지역 빈딩(Binh Định)성 Quy Nhơn 시 노은리 마을에서 노은호이 마을 더만에 마을에 걸친 130ha 의 용지에서 사파리 파크형 동물원을 건설 중임
- 사파리 파크는 FLC 그룹(FLC Group)이 이곳에서 전개한 골프 리조트 안건"FLC Quy Nhon"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다. 설계를 담당하는 것은 태국계 사파리 파크 설계 업체인 HKS 임
- 이 파크가 완성되면 성내 첫 사파리 파크형 동물원으로 동성 최대의 관광 시설 안건이 될 전망이다. 이 회사는 4 월 중에 희귀 야생 동물 73 종류의 약 1230 개체 사육을 시작함
- "FLC Quy Nhon"에는 사파리 파크형 동물원 외에 18 홀 골프장"FLC Quy Nhon 골프 링크스(FLC Quy Nhon Golf Links)"과 전단식 리조트"FLC Resort Quy Nhon"등이 포함됨

* 출처: Vinahanin.com, 03.08

베트남 영화 시장 외국계 3개사가 시장 점유율 8할 차지

- 한국 증권 대기업 KDB 대우 증권 보고서에 따르면 베트남에서 극장 시장 점유율의 98%를 5 개사가 쥐고 있으며 그 중 한국계 2 곳과 인도네시아계 1 개의 상위 3 사가 무려 83%를 차지하고 있음
- 가장 큰 점유율을 차지하는 것은 한국계의 시네마 콤플렉스(복합 영화관)으로 최대 업체인 CJ CGV 베트남이다. CGV 베트남의 점유율은 43%에 달하고, 2016 년 말 시점에서 동사가 전개하는 시네마 콤플렉스(복합 영화관)의 수는 38 개 스크린 수는 247 개 임
- 이 회사의 2016 년 매출액은 전년 대비+3.3% 늘어난 1 조 8230 억 VND, 세금 공제 후 이익은 3 배의 930 억 VND 로 호조임



대한상공회의소

- 2 위는 시네마 콤플렉스(복합 영화관) 29 개소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계 롯데 시네마(Lotte Cinema)로 점유율 30%를 차지한다. 이 회사의 2016 년 상반기 매출액과 세금 공제 후 이익의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은 각각+ 29.9%,+ 87.6%임
- 3 위는 하노이시의 시네마 콤플렉스(복합 영화관) 최대인 인도네시아계 Platinum Cineplex 로 점유율은 10%. 그러나 회사가 운영하는 시네마 콤플렉스(복합 영화관) 5 곳 중 3 곳이 폐쇄되기 때문에 앞으로의 점유율은 줄어들 것으로 보임
- 베트남 현지 기업으로서는 갤럭시 시네마(Galaxy)가 점유율 9%로 4 위에 올랐고 BHD Star Cineplex 이 점유율 6%로 5 위다. 양사는 각각 7 군데의 시네마 콤플렉스(복합 영화관)을 운영하고 있음
- 베트남의 대도시에서는 영화관에서 영화 감상의 수요가 늘어났고 관객이 1 회 관람에 지불하는 금액도 증가하고 있다.베트남에서 관객이 1 회 관람에 지불하는 금액은 4.04USD 정도로 한국의 6.29USD 에 밀돌지만 증가율은 동국을 넘어섬

* 출처: Vinahanin.com, 03.07

고무수액 국제가격 급등

- 농업 및 농촌 발전부에 따르면 지난 2 월 세계 시장의 추세에 따라 고무 수액 가격이 급등함
- 구체적으로 동나이(Dong Nai)성에서는 고무수액의 가격이 kg 당 10,300 동에서 2,200 동 인상된 12,500 동으로 거래됨
- 특히, 몇몇 국내 고무 생산 회사들은 일본 도쿄상품거래소(Tocom) 시장의 추세에 따라 고무 완제품의 판매가격을 상향조정함
- 현재, 도쿄상품거래소에서 고무 가격은 2015 년과 2016 년의 베트남 고무 평균 수출 가격의 2 배에 가깝다. 지난 달 21 일, 고무 SVR10 과 SVRL 의 가격이 각각 44,854.92 동/kg, 그리고 58,28.52 동/kg 을 기록함
- 이와 같은 추세에 따라 몇몇 국내 고무 기업들은 제품 구입 비용을 인상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지난 달 21 일, 빈푹(Binh Phuoc)성 록닌(Loc Ninh)고무 유한책임회사는 고무 수액 구매 가격을 지난 2 월 1 일에 비해 kg 당 1,400 원 인상된 17,400 원, 그리고 응고된 고무 수액의 경우 kg 당 1,300 원 인상된 15,400 동 이라고 공지함



- 최근 고무가격 인상의 원인은 세계 고무 생산량 40%를 차지하는 고무 생산 1 위국 태국의 생산량 변화에도 있다. 태국은 지난 해 12 월 남부지방에 매우 큰 홍수 피해가 있었으며, 고무 생산지의 3 분의 2 가 남부지방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2017 년 태국의 고무 생산량이 7,6%정도 급감할 전망이다
- 반면, 전문가들은 이와 같은 고무 가격 인상 추세가 가장 큰 고무 수입국인 중국이 구정 연휴가 끝난 뒤 시장에 복귀할 경우 장기적으로 지속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베트남의 올해 첫 2달간 고무 수출 총액은 작년 동기 대비 물량 면에서는 25,4%, 가치 면에서는 2,4 배 증가함
- 구체적으로 베트남은 올해 첫 두 달간 총 가치가 3 억 9200 만 달러인 193,000 톤의 고무를 수출하였고, 그 중 2 월달에만 총 가치 2 억 1100 만 달러인 99,000 톤을 수출한 것으로 나타남
- 1 월 평균 고무 수출 가격은 작년 동기 대비 70,6% 증가한 1,922 달러/톤을 기록했으며, 주요 수입국은 중국, 말레이시아와 한국으로 각각 70%, 4,2%, 4,1%를 수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3 개 국가로 수출된 고무 가격은 작년 동기 대비 연속으로 39%, 77,5% 2 회 증가함

* 출처: Vietnam-Korea Times, 03.07

달랏(Da Lat), 일본딸기 생산공장

- 크릿스타(Creat Star)사의 하이테크 기술을 적용한 일본딸기 생산농장은 달랏 최초의 일본딸기 생산농장이다. 크릿스타(Creat Star)사는 달랏 7 읍, 망린(Mãng Lìn)마을에 위치해있음
- 전 생산과정과 모델, 종 등 모두 일본의 하이테크 기술을 적용한다. 온실에는 빠른시간에 적절한 온도조절이 가능한 온도조절 장치가 설비되어 있음
- 온도가 기준치를 초과할 때, 위쪽에 검은그물망이 펼쳐져, 빛의 투과량을 감소시킴과 동시에 선선한 기온을 유지시켜줌
- 도안딘유이(Doan Dinh Duy) 크릿스타(Creat Star) 베트남의 림동(Lam Đông)지역 지점장은 일본딸기를 달랏으로 옮겨심을 때, 달랏의 기후에 성공적으로 적응시켰다고 전했다. 모든 품종의 일본 딸기는 1 대 종인 F1 으로 성장이 빠르고 모양이 예쁘며 향기가 좋음



- 딸기는 알맞은 기술로 재배할 경우, 어떠한 질병도 걸리지 않는다. 여행객들은 농장에서 즉시 수확하여 먹어볼 수 있고, 딸기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미생물이 많은 비옥한땅에 아자겍질 섬유를 섞워 딸기를 재배한다. 깨끗한 물을 주는 것도 매우 중요함
 - 또한 딸기농장에서는 벌들이 딸기 꽃 수정을 더욱 효과적으로 꿀을 사용하며, 그로 인해 과실이 맺힐 확률이 높다. 일본 딸기농장이 생긴지 3년이 지난후, 1km² 당 100-200 킬로의 딸기가 수확되어 시장에 유통되고 있다. 딸기의 가격은 Kg 당 40 만동에 판매됨
- * 출처: Vietnam-Korea Times, 03.07

하노이, 수익부동산 물량 쏟아진다

- 최근 보고에 따르면 하노이와 호치민시의 부동산 시장에 86,000 채 이상의 가정집이 이미 영업가능한 조건을 갖추고 있음
- 하노이 건설부서의 보고에 따르면, 2015 년 9 월부터 2017 년 2 월까지, 이 지역에 총 113 건의 영업조건을 갖춘 주상복합 계획안이 있었고, 그 수는 54,512 채라고 밝힘
- 또한 하노이에서 2017 년 1 월 한 달 동안 영업 조건이 충분한 6 건의 부동산 계획안이 있었음
- 구체적으로 그 계획 안들은 A10 남중옌(Nam Trung Yen) 도시구역의프로젝트, 고층주상복합 공공서비스센터, 미딩 2 (My Dinh 2) 팜흥(Pham Hung)길 16 번지에 쇼핑몰과 서비스센터 및 오피스 남뜨리연(Nam Tu Liem)군에 위치한 주상복합아파트, 응우옌뚜언 (Nguyen Tuan) 42 번지 연립주택지역에 쇼핑센터, 오피스와 고급주택, 고급호텔등이 포함된 연립-사회주택사업 2 와 3 계획안, 탄쑤언(Thanh Xuan)군, 응우옌뚜언(Nguyen Tuan) 82 번지 쇼핑센터와 아파트, 하동(Ha Dong)군, 탄빈(Thanh Binh)길 150 번지에 쑤언마이 리버사이드 (Xuan Mai Riverside) 주상복합아파트 계획안 등임
- 또한, 호치민(Ho Chi Minh)시에서는 2015 년 초부터 2016 년 11 월까지 70 개의 주상복합 계획안이 있었고, 그 규모는 32,420 채임
- 보고서는 또 계획안 완성단계에 투자자들은 건설의 질과 속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해야하며, 구매자를 끌어들이기 위한 경쟁력 있는 판매가와 적합한 영업방식을 반드시 강구해야한다며 2017 년 부동산시장에 큰 변화가 없을 전망함



* 출처: Vietnam-Korea Times, 03.07

베트남 최초 하이테크 계란공장

- DTK 주식회사는 오는 4월 3일 푸토(Phu Tho)성 팜농(Tam Nong)현에 DTK 푸토계란생산 공장을 정식개장하고 본격 운영할 것이라고 25일 공포함
- 하이테크식 공장은 계란생산의 전 과정에서 생물학적 안전성 검사의 기능이 있다. 신선한 계란, 맛있는 계란, 영양이 많은 계란을 소비자에게 공급할 수 있음
- 42헥타 이상의 부지와 총 8천억동의 투자금이 공장건설에 투자됐다. 2단계 생산활동에 접어든 이후, DTK 푸토계란 생산공장에서 매년 1억 7천 5백알의 계란이 생산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망됨
- DTK 회사대표에 따르면, 공장은 원료의 품질, 식품안전성 검사와, 종의 품질을 검사 할 수 있으며, 일본 ISE Food 그룹의 확실한 사육과정을 결합하여 양질의 상품이 생산가능함
- 닭들은 DTK 푸토계란 생산공장으로 옮겨져 길러지며, 이스라엘 회사인 아그로탑(Agrotop)사의 방열조립식 간이 닭장시스템을 접목한 이상적인 조건에서 사육됨
- 또한, 일본회사 하이템(Hytem)사의 사육시스템, 온도, 습도, 풍량설비와 나가카와(Nagakawa)사의 정수시스템도 도입됨
- DTK 푸토계란 생산공장의 환경은 항상 청결하고, 절대적으로 안전성이 보장이 된다. 작업공장에 전용시설, 노동자들은 엄격한 분리소독을 준수함
- DTK 푸토계란 생산공장의 전 과정은 자동화 되어있고, 외부환경과 격리되어 있어 최고의 생물학적 안전성이 보장되며, 위생안전성이 보장된다. 상품이 양계장에서 매장으로 공급되는 시간은 24시간 이내임

* 출처: Vietnam-Korea Times, 03.07

투자건설 보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손실내용

- 재무부가 지난 해 12월 26일 공포해 이번 달 1일부터 시행효력이 발생한 통지서 329/2016/TT-BTC 호는 투자건설 활동에 있어서 보험 보상책임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손실 내용을 정확히 명시함



- 통지서 제 329/2016/TT-BTC 호는 정부가 지난 2015년 11월 13일 공표한 투자건설 활동에 관한 보험규정 결정서 제 119/2005/NĐ-CP 호의 몇몇 조항의 시행을 지도함
- 이에 따르면, 투자건설 보험 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손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고의적인 행동으로 인해 손실이 발생한 경우, 구체적으로 통지서는 폭동, 파업, 적대적 세력에 의해 발생한 손실이라고 규정함
-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고의적인 위법행위로 인해 손실이 발생한 경우 (단, 해당 규정은 시공 근로자가 현장 안에서 자기 보호를 위한 정당방위, 인명 구조, 자산 구조, 의사의 처방에 따른 도핑 물질 복용 상태인 경우 적용되지 않는다)
- 투자 자문가의 설계적인 문제로 인해 손실이 발생한 경우(해당 규정은 건설 기간 동안의 건설작업 보험에 한해서만 적용된다)
- 고의적으로 결정한 시공 방법, 설계, 측정, 실험 및 검사를 거치지 않은 재료 사용, 석면 및 석면이 원료로 사용된 물질 사용 등으로 인해 발생한 손실(해당 규정은 투자건설 자문 전문가 책임 보험인 경우에만 적용된다)
- 둘째, 우연성을 띠지 않는 손실. 구체적으로는 부식, 침식, 산화, 부패, 침강, 등으로 인한 손실, 건설 자재, 원료의 불량성 으로 인해 손실(해당 규정은 통지서 15조 1항 a 목의 규정에 따른 건설 작업에만 적용된다); 원재료 불량, 부식, 침식, 산화, 부패 등으로 인한 손실(해당 규정은 통지서 15조 1항 b 목의 규정에 따른 건설 작업에만 적용된다)
- 셋째,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는 손실, 예를 들어 투자 계획자가 건설 조사, 설계 등의 작업을 위해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자료, 컴퓨터 프로그램의 손실(해당 규정은 투자건설 자문 전문가 책임 보험에만 적용된다)
- 넷째, 재난으로 인한 손실: 전쟁, 테러, 핵 반응,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실; 환경과 제 3자 오염 발생을 일으키는 설계 및 건설 조사 자문에 의한 손실(해당 규정은 투자건설 자문 전문가 책임 보험에만 적용된다)
- 다섯째, 보험가입자가 보험사업 법 3조 9항의 규정에 따라 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권리가 없는 상황에서 발생한 손실
- 통지서는 보험회사가 보험가입자 충분한 의논하고 책임을 합의해야 하며, 결정서 제 119/2015/NĐ-CP 호의 6 조 2 항에 규정되어 있는 손실 범위 중 보험 계약상에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를 명시해야 한다고 규정함

* 출처: Vietnam-Korea Times, 03.07



에너지절약마크 부착이 면제되는 4가지 대상

- 상공업부의 각종 에너지 자원을 사용하는 운송수단, 장비에 부착하는 에너지 절약 마크에 대한 통지서 35 호의 규정의 시행효력이 지난달 10 일부터 발생함
- 이에 따르면, 통지서는 최근 에너지절약마크 부착이 면제되는 4 가지 대상을 새롭게 발표했다. 대상은 재수출을 위한 임시수입, 국경통과 장비 및 제품, 수출을 위한 국내 생산 가공 제품(국내 유통 물량 없음), 국방, 안보, 국비,방산, 안보 관련 분야 제품; 시장 유통성이 없는 수입품(개인 수화물, 외교 물품, 박람회 및 전시회 참가용 물품, 선물용품) 등임
- 통지서 36 호는 기업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각종 비용과 시간을 절감하는데 기여하여 기업들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고 있음
- 쩌꾸부(Trinh Quoc Vu) 과학기술 및 에너지 절약국 국장은, 통지서 36 호가 에너지절약마크 부착, 검사, 관리 방안과 기반을 바꾸고 실질적으로 효율성이 떨어지고 기업들에게 비용 부담을 안겨주는 규정을 철회하자는 결정서 제 19 호의 요청에 응하고 있다고 평가함
- 통지서가 공표되면서, 보다 완화된 규제로 기업들은 에너지 자원을 사용하는 운송수단 및 장비에 에너지절약마크를 등록하고 부착하는 일에 있어서 생산 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함

* 출처: Vietnam-Korea Times, 03.07

신문, 온라인 신문 발행 허가 관련 신규 규정

- 정보통신부가 새롭게 공표한 통지서 제 48/2016/TT-BTTTT 호는 종이 신문, 온라인 신문 발행, 인쇄물 출판, 호회 출판, 특별 간행 등의 활동 허가에 대해 새롭게 규정함
- 이에 따르면, 정보통신부는 해당 통지서의 규정 및 법률 규정에 따라 종이 신문, 온라인 신문 인쇄, 인쇄물 출판, 특별 간행 등의 활동에 대해 허가한다고 함
- 언론 국장은 호회 출판 허가서, 온라인 신문 업로드 허가서, 특별 간행 출판 허가서, 각 중앙 기관, 기업, 베트남 진출 해외 기업의 보도 허가서를 발급함
- 정보통신 사무소장은 지방 성 인민위원회와 협력하여 규정에 따라 중앙 소속 도시, 지방 성에 위치한 기업 및 기관들에게 보도 허가서를 발급함



- 인쇄 활동 허가에 필요한 서류 및 행정수속 절차에 대해 통지서는 다음과 같이 명시한다.
인쇄 활동 허가서 발급 신청 기관 및 기업은 정보통신부에 직접적으로, 또는 우편을 통해 필요 서류를 제출해야 함
- 구비 서류는 인쇄 활동 허가서 신청서, 규정 내용을 담은 기업 및 기관의 인쇄 활동 계획안, 종이 신문 예상 인사 목록, 총 편집장이 될 사람의 이력서, 인쇄 활동 허가서 신청 기업 및 기관의 견본 인쇄물 등을 포함함
- 정보통신부는 기업 및 기관이 합법적인 서류를 제출한 날로부터 90 일 이내에 허가서를 발급해야 하며; 신청을 기각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이유를 명백히 해당 기업 및 기관에게 서면으로 안내해주어야 함
- 또한 온라인 발행 허가에 필요한 서류 및 행정수속 절차에 대해서는 온라인 신문, 잡지 발행 허가 신청하는 기업 및 기관은 필요한 서류를 정보통신부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해야 함
- 구비 서류는 온라인 보도 활동 허가 신청서, 규정 내용을 담은 기업 및 기관의 온라인 보도 활동 계획안, 인사 예상 목록, 총 편집장이 될 사람의 이력서, 기업의 보도 홈페이지 컬러 출력본, 신청하는 날로부터 6 개월 이상 기한이 남은 본인 소유 확인서 등임
- 마찬가지로, 정보통신부는 기업 및 기관이 합법적인 서류를 제출한 날로부터 90 일 이내에 허가서를 발급해야 하며 신청을 기각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이유를 명백히 해당 기업 및 기관에게 서면으로 안내해주어야 함
- 법률 규정에 따라 발행 및 인쇄 허가서를 발급받은 기관은 해당 허가서의 효력 기한이 끝나는 경우, 통지서의 규정에 따라 허가서 재발급 신청 절차를 진행해야 함. 해당 통지서는 2017 년 2 월 15 일부터 효력이 발생함

* 출처: Vietnam-Korea Times, 03.07